

도, 탄소기술 사업화 지원 본격화

‘탄소산업 활성화 T2B 사업’ 2020년까지 38억 투입...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

전북도 내 중소 탄소기업들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사업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전북도는 ‘탄소산업 활성화 T2B(Tech to Biz)사업’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38억원(국비 19억원, 도비 19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산업 활성화 T2B 사업’은 도내 중소 탄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보유한 우수한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을 사업화로 촉진시키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상시 수요공급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화 촉진 지원 프로그램 운영, 거래활성화 지원, 성공모델 발굴 확산 등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우선 도는 올해 도내 탄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제품에 대한 DB를 구축해 국내·외 수요기업과 연계해 주는 온라인 연계시스템(상시 시연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시연장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T2B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되면 도내 탄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제품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내 유관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까지도 연계해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내 탄소 기술과 제품의 시연에 이어 도는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신기술이 적용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공정기술 개선과 개발제품의 인증 취득 지원은 물론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매년 글로벌 바이어



어업인 풍어를 기원합니다

송해진 도지사는 12일 군산시 비응항에 위치한 군산어업정보통신국을 방문하여 어선의 안전조업과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무선통신망을 통해 도내 연안에 출어 중인 어선들에게 안전조업과 풍어를 기원하는 격려 방송을 실시하고, 조업 중인 어선 및 낚시어선의 조업여건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낚시객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상담회를 포함해 1:1 수요매칭 등을 지원 하고 탄소 대표기업(C-star, 탄소 소재를 기반으로 융복합 제품을 만들어 사업화에 성공한 우수한 기업)을 발굴·육성한다.

전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이뤄지는 이 사업은 지난 4월 도내 주요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연·관 기술사업화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했고 한 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 도내 탄소 융·복합소재 부품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탄소 관련 기업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은 물론 국내·외 기업과 비즈니스 협력체계가 구축·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탄소 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탄소 신규제품의 출시가 확대돼 도내

탄소 산업이 더욱 활력을 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도 전대식 탄소산업과장은 “탄소산업 활성화 T2B 사업을 통해 상시 거래의 장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것”이라며 “또한 도내 탄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제품이 국내외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하고 안정적으로 사업화가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얼굴인식시스템 정부 청사 막아낼까?

포토샵·과거사진·쌍둥이도 식별 가능

정부가 청사 출입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문인식 대신 얼굴인식시스템을 도입키로 한 것은 인식이 높고 인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2일 세종과 서울, 과천, 대전 등 4대 청사 건물 진입 스피드게이트에 지문인식 대신 얼굴인식시스템을 올해 안에 설치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4대 청사에는 출퇴근시간에 하루 평균 공무원 3만2000명과 6000명의 방문객이 출입한다.

현재는 방호관 1~2명이 육안으로 청사출입자를 식별하고 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화상에 표출된 등록사진과 실제 얼굴을 찍어 본 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출입자가 들어올 경우 자동으로 출입문이 차단되고 경고음이 나온다.

이기술 청사보안 민간건설담당위원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생체인식은 지문과 홍채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얼굴인식시스템이 인식률이 더 높고 지문은 안되는 사람이 있고 검출우려, 위조가 쉽다”고 설명했다.

또 “지문은 얼굴인식보다 인식속도가 느리다. 공항 등에서 보안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을 서지 않고 빠르게 통과하는 것도 중요해 얼굴인식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다”면서 “홍채인식도 좋은 방법이지만 기계 한대당 몇억 씩하고 미국에서 함부로 수출 못하도록 막고 있어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얼굴인식시스템이

10~20년 전 과거모습이나 포토샵, 성형, 쌍둥이 등의 사진과 실제 얼굴 식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성철 행자부 차관은 “민간 전문가단체에서 그동안 여러가지 신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비교하고 연구를 많이 했다. 얼굴인식시스템은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곳도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본인식별 확인요구가 얼굴인식시스템을 통해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첨단 얼굴인식시스템은 인상이 아닌 얼굴골격과 미간거리, 눈썹 등을 통해 식별하기 때문에 과도한 성형이나 역광으로 사진을 찍어 얼굴이 흐릿하게 나온 사진이 아니라면, 20년전 과거사진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정확도가 98%에 달한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20일부터 정부서울청사 건물 진입 일부 스피드게이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개발한 얼굴인식시스템을 설치해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기술적 오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얼굴인식시스템 인증기관(정확도 98%)은 17개 업체, 21개 제품으로 정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4년전 정부청사에 스피드게이트를 도입할 때 50억원 가량이 소요됐으며 기재부와 관련 예산을 협의하고 있다.

/박용주 기자

전북도, 자동차 탄소복합재 생산기술 개발한다

산자부 공모 선정 3년간 국비 40억 지원받아... 향후 200억 매출 증대 예상

전북도내 탄소섬유 복합재 생산 시스템 개발로 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되는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공모에 ‘차체부품 고속 생산을 위한 Long Fiber Carbon SMC 시스템 개발’ 과제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고강도 탄소섬유복합재 경량화 부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장비 및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참여기관들은 3년간 국비 40억을 지원받고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고강도 고경량의 자동차용 탄소섬유 복합재 부품의 대량생산 공정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사업에는 개발된 부품의 상용화 검증 및 신뢰성 평가도 포함하고 있다.

탄소섬유복합재는 소재의 경량화 문제와 대량 생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으로의 진입이 힘들었다. 이번 사업으로 자동차 외장부품에 탄소섬유 복합재 적용 시 강관 대비 45% 이상의 경량화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기술에 의한 유리섬유강화 복합재 부품에 비해서도 25% 이상 경량화를 달성할 수 있고 강도 및 강성이 우수해 내구 치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의 성형 공법과는 달리 고

강도의 복잡한 형상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할 수 있고, 성형 시간이 5분 이하로 매우 짧아 고경량의 탄소섬유복합재 대량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정 기술로써 재사용 탄소섬유를 이용할 수 있고 중간재 제조공정이 필요치 않아 원가 경쟁력도 매우 우수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탄소섬유복합재 자동차소재 적용으로 향후 주관기업 및 참여 기업은 약 200억원의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면서 “탄소섬유의 보급 확산에 기여하여 전북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중인 탄소섬유소재 부문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도, 공공체육시설 지원사업비 67억 확보

전북도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16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결과 역대 공공체육시설 지원 사업 중 최대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가 공개한 2016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비는 약 67억원 수준으로 2015년(40억원)에 비해 27억원 정도 증가했다.

올해 도가 확보한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2017 FIFA U-20 월드컵 개최지인 전주월드컵 경기장 시설 개·보수 사업’,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4

개소,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 4개소, ‘체육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 2개소,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3개소 등이 있다.

도 관계자는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면서 “앞으로 도민의 체력 및 건강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은 2016년 하반기부터 추진하여 2017년까지 마무리지를 계획한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2016. 2. 13. 사망한 망 최병혁(1926년 12월 22일생)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재산상속한정승인 시행에 따른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정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16년단318 상속한정승인
-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최진, 최영, 최영, 최현자
- 한정승인수리일: 2016. 4. 29.
- 공고기간: 2016. 5. 13. 부터 2016. 7. 12. 까지 (2개월)
- 대표연락처: 최진(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100길 57, 010-3906-6019)

전주시민을 위한 무료 특강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과 전북도내 6개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원우회가 공동으로 전주시민과 도민을 위한 무료 공개 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삶의 즐거움과 명랑한 사회를 위하여 시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인성학 및 부부대화기법 특강으로 실시됩니다.



강사: 주 선희

- 원광디지털대학 교수
- KBS 사회교육원 강사
- 인성학박사 1호
- KBS 아침마당 패널

강의주제: 행복을 부르는 인성



강사: 김 양 옥

-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대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 KBS 아침마당(3회) 출연자

강의주제: 부부대화기법

○일시: 2016. 5. 25(수) 오후 7시 ○장소: 전주시청 강당
○문의전화: 231-6669, 285-6676 (주소: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주최: 한국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도내 6개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